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준 (연세대학교)

-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을 종합하는 주관적 측정치이며,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긍정-부정 정서경험으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집단의 비율과 만족도의 평균 모두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정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 한국에서 유데모니아는 최근 낮아지는 경향이지만, 정서경험은 코로나19 이전까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연령별로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와 정서경험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고 있다.
- 최근 아시아에서 주관적 웰빙이 개선된 국가는 대만과 중국인데, 대만은 사회적 기반의 확충의 결과로, 중국은 물질적 수준의 향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을 종합하는 주관적 개념이다. 사회지표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주관적 웰빙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사회지표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사회지표의 기본틀이 갖추어진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풍요 속의 빈곤, 성장의 한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경제적 부 중심의 GDP에 대한 일방적 강조로부터 벗어나자는 맥락에서였다.

그런데 201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삶의 질은 다시금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이때 강조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삶의 필요성이었고, 그와 함께 주관적 웰빙이 강조되었다. 1960년대나 반세기 후인 2010년대 모두 GDP로 측정된 사회의 전반적 물질적 삶의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국제적으로 주관적 웰빙이 사회지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의뢰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2009년 사회경제 발전 측정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 2011년 발간된 OECD의 *How's Life?* 보고서에서 주관적 웰빙을 독립적 영역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되기 시작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또한 주관적 웰빙을 행복의 측정치로 사용해왔다.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이 사회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목받게 된 것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통계청에서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삶의 질 지표에서 주관적 웰빙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9년 사회지표 5차 개편에서 주관적 웰빙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



하였다. 그 이전에 주관적 웰빙은 사회통합 영역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관적 웰빙이 사회지표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하면서 사회동향에서도 주관적 웰빙을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 역시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90년대 중반 1만 달러, 2000년대 중반 2만 달러, 2010년대 중반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첫째는 삶의 만족도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회고적 만족이다. 둘째는 정서 경험으로 현재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한다. 셋째는 유데모니아로 일과 삶의 의미 충만함과 보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정부 승인통계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와 200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이다. 하지만 이들 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만을 측정하였고 측정 방식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1점 척도가 아닌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와 함께 정서 경험 및 유데모니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된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처음이었다. OECD의 *How's Life?* 보고서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주

관적 웰빙의 국제비교는 2005-2006년부터 실시된 「갤럽 월드폴(Gallup World Poll)」 자료를 주로 이용한다. 이 자료 역시 11점 척도로 세 차원에 걸쳐 주관적 웰빙을 측정한다.

주관적 웰빙의 변화 추세

삶의 만족도

[그림 XII-1]과 [그림 XII-2]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사회조사」, 「갤럽 월드폴」, 「사회통합실태조사」 등에서 측정된 삶의 만족도 추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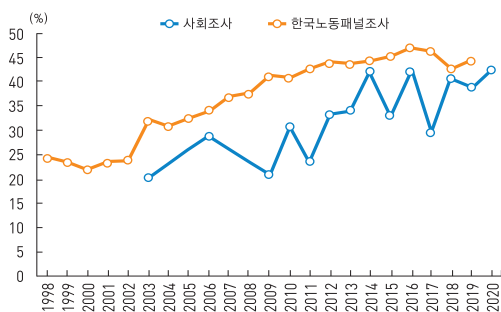
[그림 XII-1]은 5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한다(‘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의 추세이다. 「사회조사」은 2003년, 2006년, 2009-2020년 조사자료의 결과이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은 1998년 1차 조사부터 2019년 22차 조사까지 자료의 결과이다. 패널조사로 동일 표본을 추적해서 반복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결과가 「사회조사」에 비해 보다 일관된 추세를 보인다.

두 조사 결과 모두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만족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정체 혹은 증감을 반복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IMF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22.2%로 가장 낮게 출발해서 2011년 43.1%까지 10여 년 만에 20%p 이상 만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후 2016년 47.4%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뒤 감소해서 2019년에는 44.7%의 만족 비율을 보여주었다. 「사회조사」에서 만족 비율은 2003년 20.4%였다가 증감을 거듭하며 2014년 42.2%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42.7%가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는 2000년 이전까지 불만족 비율이 만족 비율보다 높다가 이후 만족 비율이 앞서는 반면,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2012년 이전까지 불만족 비율이 더 우세하다가 이후 만족 비율이 우세하게 바뀐다.

[그림 XII-1]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 비율, 1998-2020



주: 1)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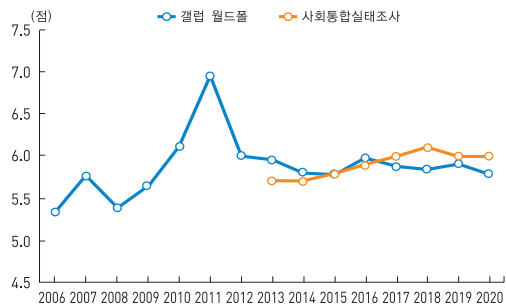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2]는 「갤럽 월드폴」과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우 불만족'을 0점, '매우 만족'을 10점으로 한 11점 척도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평균의 추세이다. 「갤럽 월드폴」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자료의 결과이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자료의 결과이다.

보다 시계열이 긴 「갤럽 월드폴」 자료의 결과를 보면 앞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이나 「사회조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 평균은 2006년 5.3점에서 2011년 6.9점까지 증가하다가, 직후 크게 떨어져 6점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2020년 5.8점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1년의 6.9점은 전체 추세에서 보면 다소 예외적으로 높은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과는 2013년 5.7점에서 2018년 6.1점까지 완만하게 높아진 뒤 정체해서 2020년 6.0점의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두 조사 모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6.0점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XII-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0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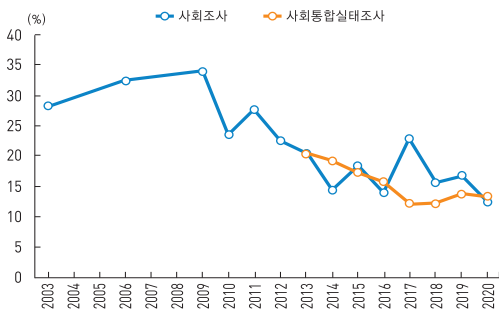
위에 살펴본 삶의 만족도 평균의 추세는 2010년대 초반 이후 평균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삶에 불만족인 사람들의 비율은 어떤 추세를 보일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한편에서는 만족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감소에 의해 일어난다. 만족도의 평균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불만족한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그림 XII-3]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비율의 추세이다. 5점 척도로 측정하는 「사회조사」의 경우 만족이나 보통이 아닌 불만족(‘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11점 척도로 측정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중간인 5점 아래(0-4점)에 응답한 비율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사회조사」에서는 2003년 28.3%에서 2009년 33.9%로 증가했다가 이후 경향적으로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12.5%까지 불만족 응답 비율이 줄어든다. 이러한 추세는 앞서 [그림 XII-1]에서 「사회조사」의 만족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사회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20.3%에서 2020년 13.2%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큰 변화가 없지만 불만족 응답자의 비율은 35%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불평등하며 그 불평등은 늘어나는가 아니면 줄어드는가? 삶의 만족도 평균이 한 사회의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나타낸다면, 만족도의 불평등은 주관적 웰빙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낸다.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과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 역시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값을 하위 20% 구간의 척도값 합계 대비 상위 20% 구간의 척도값 합계의 비로 나타내면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는지 아니면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1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삶의 만족도 점수를 활용해 불평등 수준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산한 결과가 [그림 XII-4]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은 2013년 3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0년에는 2배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불만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XII-5]는 성별, 연령대와 같은 인구집단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

[그림 XII-3] 삶의 만족도에서 불만족 비율, 2003-2020



주: 1)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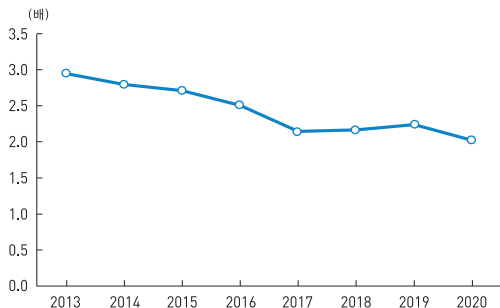
2) 통계치는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4]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 2013-2020



주: 1) 삶의 만족도 불평등 수준은 만족도(0-10점) 점수 하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도 점수 합계 대비 상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도 점수 합계의 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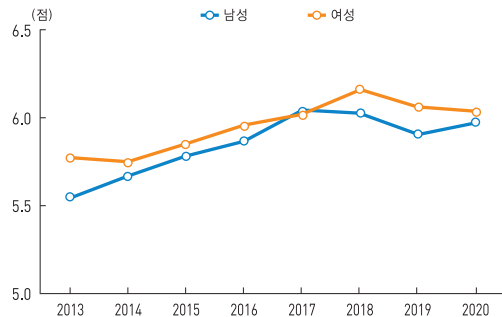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삶의 만족도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면, 성별, 연령별 격차도 줄어들었을까? 성별 격차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남성에 비해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2013년과 2018, 2019년 다른 해에 비해 증가하지만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연령대별 만족도 격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5년과 2016년이 예외임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60대 이상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0대 이하와 40-50대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 2018년 이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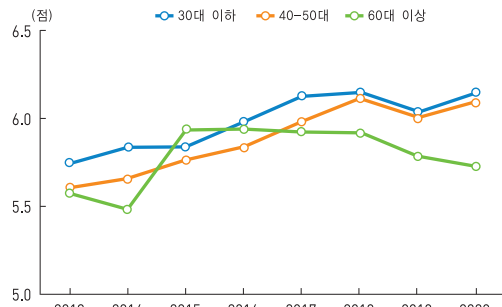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삶의 만족도 추세는 물질적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의 추세와는 어떤

[그림 XII-5] 성 및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0

1) 성별



2) 연령대별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60대 이상'은 2019년까지는 60대이고, 2020년은 60대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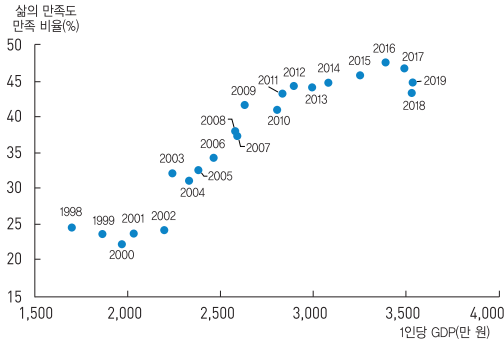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관계를 보일까? [그림 XII-6]은 만족의 비율과 만족도 평균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과 1인당 GDP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두 그래프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750만원 부근까지 1인당 GDP가 증가하면 삶의 만족이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1인당 GDP가 높아져도 삶의 만족이 정체하거나 완만하게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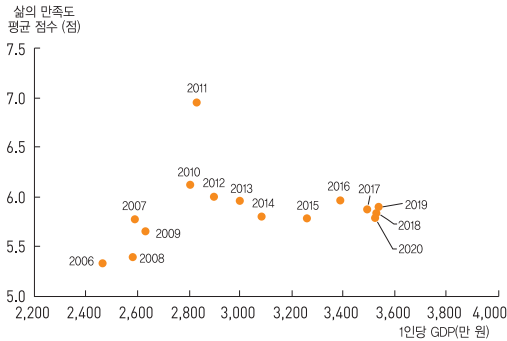


[그림 XII-6]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1998-2020

1)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 비율(한국노동패널조사)



2)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갤럽 월드폴)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제시된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2) 갤럽 월드폴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원화 만 원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갤럽 월드폴」의 산점도에서 이상치는 2011년도에 삶의 만족도 평균이 6.9점으로 예외적으로 높았던 경우이다. 1인당 GDP가 2,750만 원보다 높은 시기는 2010년 이후이다. 결국 이 결과는 201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GDP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경험과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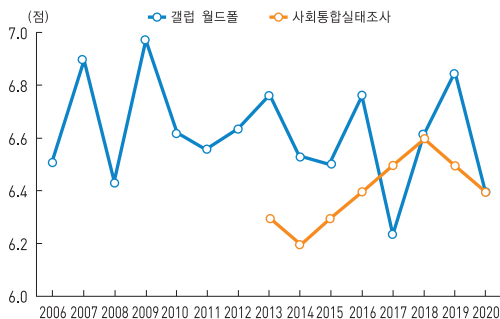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와 함께 주관적 웰빙의 중요한 차원인 긍정, 부정 정서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XII-7]과 같다. 「갤럽 월드폴」과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긍정, 부정 정서를 서로 달리 측정한다. 「갤럽 월드폴」은 긍정 정서를 행복감, 웃음, 즐거움의 세 정서를 각각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부정 정서는 근심, 우울, 분노의 세 정서를 각각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경험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반면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긍정 정서의 경우 행복감 하나에 대한 경험의 정도로, 부정 정서의 경우 근심과 우울 두 정서에 대한 경험의 정도를 응답한 것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갤럽 월드폴」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측정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조사된 긍정, 부정 정서의 추세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XII-7]을 보면 긍정 정서의 경우 두 조사 모두 6점에서 7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부정 정서의 경우 시계열이 더 긴 「갤럽 월드폴」은 2006년 3.4점에서 2010년 1.3점까지 부정 정서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서 2014년 2.8점까지 상승한 뒤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부정 정서의 수준은 차이를 보이지만 2014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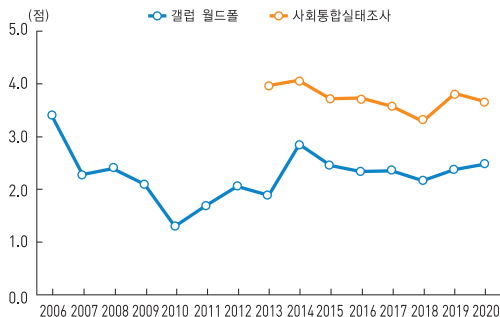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두 조사 모두 2018년이 가장 낮은 부정 정서 수준을 보인다. 위에 살펴본 삶의 만족도 추세와 비교한다면, 긍정 정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부정 정서는 2010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이후 정체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는 점이 삶의 만족도 추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I-7]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 2006-2020

1) 긍정적 정서경험



2) 부정적 정서경험



주: 1) 긍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갤럽 월드폴은 행복감, 웃음, 즐거움 등 세 가지 정서 경험(0-10점 척도) 평균값이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행복감(0-10점 척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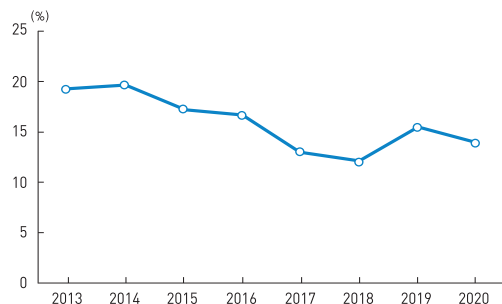
2) 부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갤럽 월드폴은 근심, 우울, 분노 등 세 가지 정서 경험(0-10점 척도) 평균값이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근심, 우울 등 두 가지 정서 경험(0-10점 척도)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그림 XII-8]은 근심과 우울의 평균으로 측정 한 부정 정서 경험이 행복감으로 측정한 긍정 정서보다 강한 사람들 비율의 추세를 보여준다. 부정 정서 경험이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사람들은 정서경험이 부정적으로 치우쳐 주관적 웰빙이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2013년 부정적 정서경험이 우세한 집단의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12%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는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I-8]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집단 비율, 2013-2020



주: 1) 긍정 정서는 행복감, 부정 정서는 근심과 우울 두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2) 통계치는 부정 정서 경험 평균값이 긍정 정서 경험 평균값보다 큰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정적 정서경험이 긍정적 정서경험보다 강한 사람들의 비율은 성별, 연령대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추세는 어떠한가? [그림 XII-9]를 보면 부정적 정서경험이 우세한 비율은 전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정보다 높으며, 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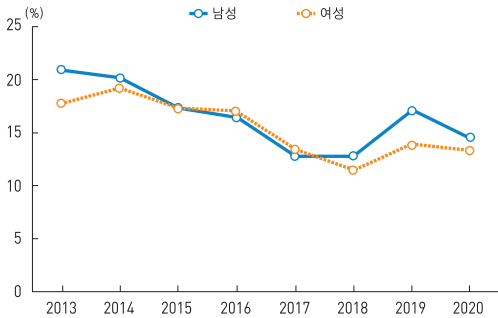
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보면 남녀 간 차이는 2013년과 2019년에 증가하는 반면, 다른 해에는 거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부정적 정서경험이 우세한 비율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60대 이상과

다른 연령대 간의 격차는 2013년에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더 크게 나타나며, 2020년은 30대 이하와 40~50대, 60대 이상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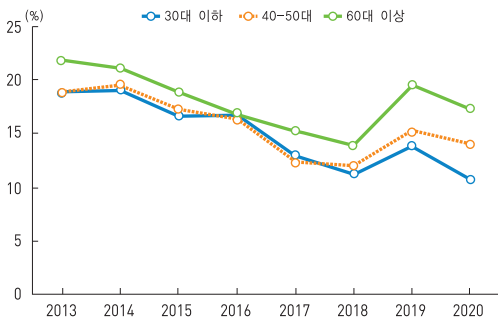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의 마지막 차원인 유테모니아의 경우 「갤럽 월드폴」 조사 결과가 세계행복보고서에 보고된 경우가 많지 않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2013년에서 2018년까지 6.2점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20년 6.0점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XII-9] 성 및 연령별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집단 비율, 2013-2020

1) 성별



2) 연령별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긍정 정서는 행복감, 부정 정서는 근심과 우울 두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3) 통계치는 부정 정서 경험 평균값이 긍정 정서 경험 평균값보다 큰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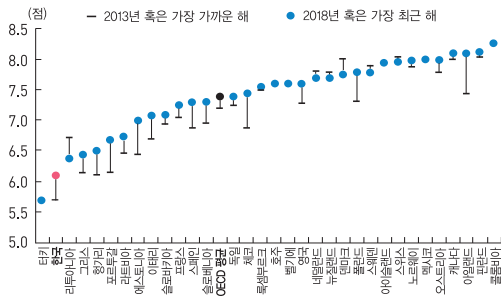
4) 범례에서 '60대 이상'은 2019년까지는 60대이고, 2020년은 60대 이상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관적 웰빙의 국제비교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그림 XII-10]은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How's Life?* 보고서에 제시된 삶의 만족도의 국제비교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사용된 자료는 각 나라에서 조사된 자료들이며, 한국은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조사대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대체로 북구 나라들과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8점 이상 혹은 그에 가까운 반면, 대부분의 다른 서부 유럽 나라들은 7점에서 8점 사이에 있다. 동부 유럽 국가들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 유럽 나라들은 6점에서 7점 사이에 있고 한국은 5점에서 6점 사이에 있다. 한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XII-10]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 2018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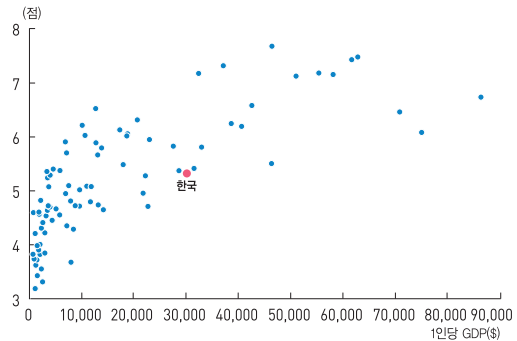
출처: OECD, *How's Life? 2020*, 2020.

우리는 앞에서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하위권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어떠하며, 경제적 발전 수준과 비교해서는 어떠한가? 아래 [그림 XII-11]은 「갤럽 월드 폴」이 조사한 세계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구매력 수준에 따른 1인당 GDP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각 점은 나라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삶의 만족도 평균, 가로축은 구매력으로 나타낸 1인당 GDP 수준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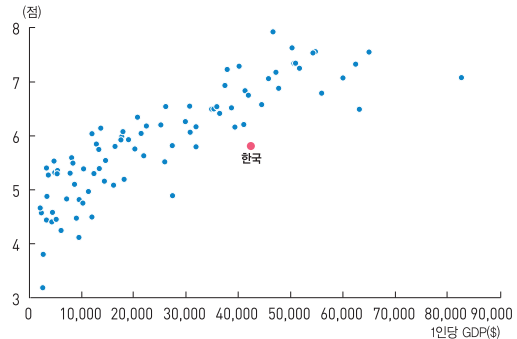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한국은 2006년과 2020년 모두 전체 조사 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보면 4만 달러 정도까지는 1인당 GDP 증가와 함께 삶의 만족도가 선형에

[그림 XII-11] 세계 국가별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2006, 2020

1) 2006년



2) 2020년



주: 1) 전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미국 달러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가깝게 증가하지만, 4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들은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1970년대 경제학자 이스털린의 이름을 딴 '이스



틸린의 역설'을 보여준다. 한국은 대체로 이러한 변곡점 주변에 존재할 뿐 아니라,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나라와 낮아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그림 XII-12]는 '갤럽 월드폴'을 실시하기 시작한 2005-2006년 이후 최근까지 삶의 만족도 평균의 국가별 비교를 한국과 아시아권, 한국과 유럽, 미국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한국은 2010년 이전까지 대만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일본과 유사하게 6점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다. 반면 대만은 2010년 이후 경향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초에는 한국과 1.5점 이상 격차를 보일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상승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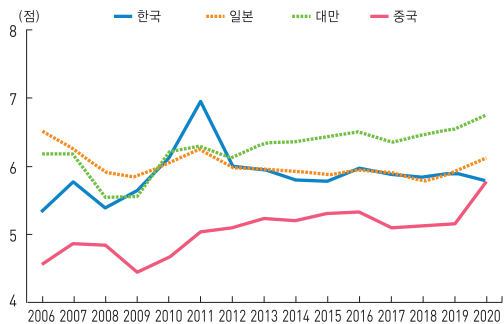
반면,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핀란드와 같은 북구 나라들과는 2점 이상, 서유럽이나 미국과도 1점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핀란드는 완만한 상승, 프랑스와 미국은 완만한 하강, 영국은 정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아시아 나라들과의 삶의 만족도 비교에서 일본과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정체와 대만과 중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상승은 대비가 된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만족도 상승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현상인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찾기 쉽지 않다.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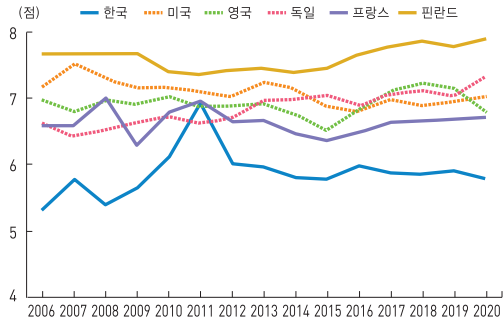
행복보고서에 제공된 관련 변수들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대만과 중국의 삶의 만족도 상승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림 XII-12] 한국과 주요 국가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0

1) 한국과 아시아 국가



2) 한국과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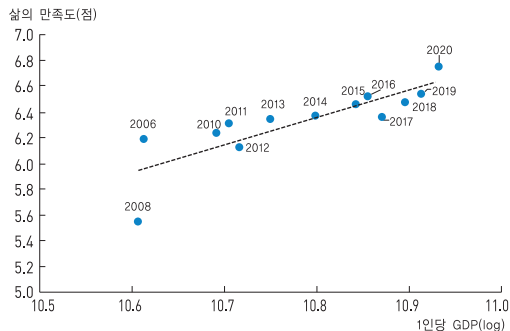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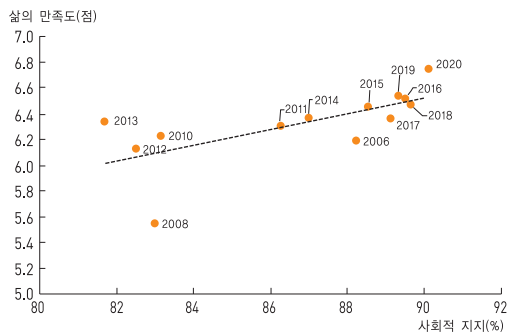
[그림 XII-13]은 대만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의 산점도이다. 그래프를 보면 대만의 연도별 1인당 GDP 로그값과 연도별 삶의 만족도는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 결국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 XII-13] 대만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계, 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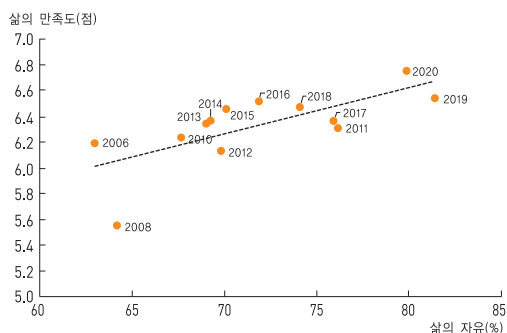
1)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2)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3) 삶의 자유와 삶의 만족도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3) 삶의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는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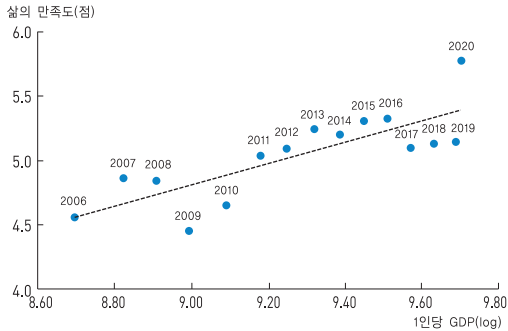
하지만 아래 두 그래프를 보면 대만의 사회적 지지 수준 즉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비율과 삶의 자유 즉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 역시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대만의 경제가 중국의 비약으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과 아울러 사회적 개혁의 성과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대만은 2010년대 들어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의 불만과 목소리에 경청하며 교육, 주거, 일자리 등에서 세대간 정의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젠더와 소수자 등 정체성 정치 측면에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가져왔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대만과 다르다. [그림 XII-14]는 중국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의 산점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 변화와 유의한 통계적 관련성을 갖는 변수는 1인당 GDP의 로그값과 같은 물질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건강수명과 같은 의료와 보건환경의 개선이다. 최근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그간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여건이 빠르게 개선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사회적 제약이 높은 까닭에 삶의 자유는 확대되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도 약화되어 사회적 지지 역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회 관련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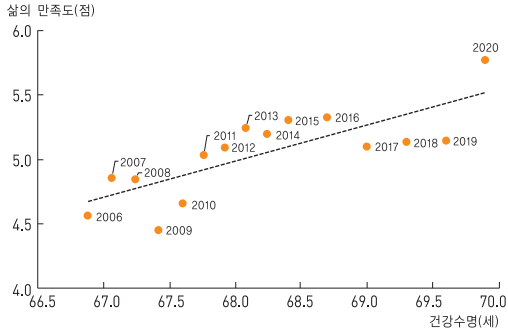


[그림 XII-14] 중국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계, 2006-2020

1)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2) 건강수명과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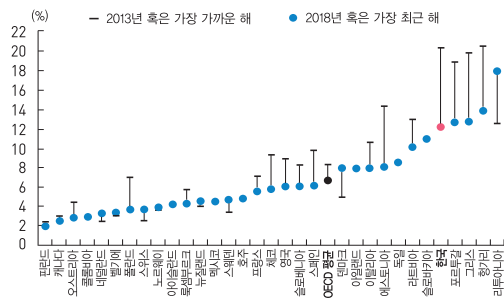
-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3)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찍 죽거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이 손상된 기간을 빼고 계산한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함.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앞에서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불만족 집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해외와 비교하면 불만족 집단의 비율은 어떠한가? [그림 XII-15]는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국가별 삶의 만족도 불만족 집단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은 삶의 만족도 평

균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처럼 불만족 집단의 비율 또한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평균인 7%에 비해 5%p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 불만족 비율은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처럼 2010년대 초반 20% 정도 수준에서 10%를 조금 넘는 정도로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만족 집단 비율이 높다.

[그림 XII-15]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에서 불만족 비율,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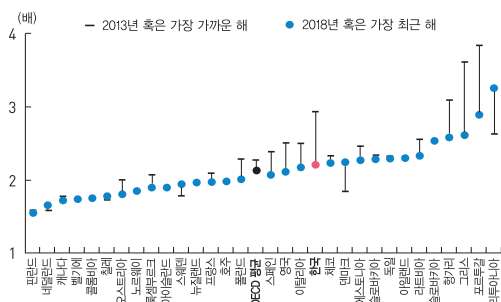


-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측정됨.
2) 통계치는 삶의 만족도를 4점 이하로 평가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2020.

앞에서 우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측정 한 삶의 만족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외국과 비교해서 삶의 만족도 불평등의 정도는 어떻게? [그림 XII-16]은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삶의 만족도 불평등 수준을 삶의 만족도 점수 하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 대비 상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 비율로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 불평등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2013년과 2018년 사이 포르투갈, 그리스와 함께 불평등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이 낮고, 만족도 평균이 낮은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불평등이 높다. 반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낮은 편이지만 불평등 정도는 중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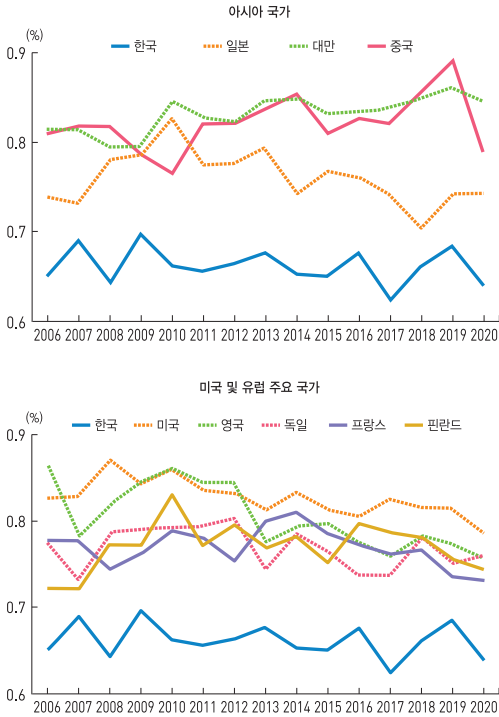
[그림 XII-16]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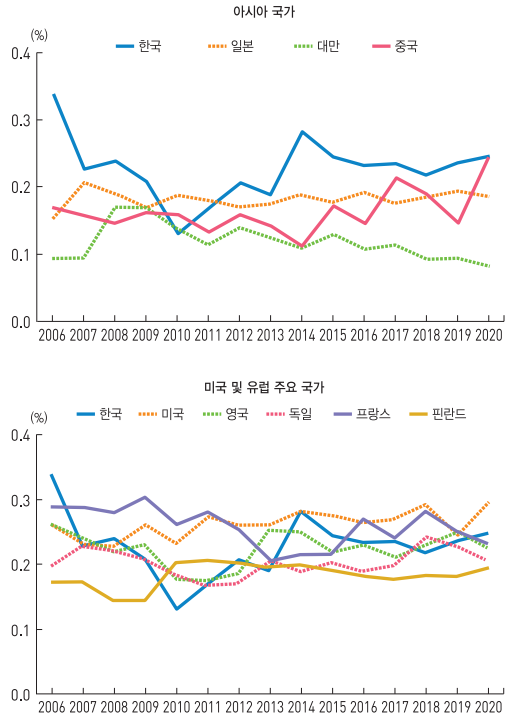


[그림 XII-17] 한국과 주요 국가의 긍정/부정적 정서경험, 2006-2020

1) 긍정적 정서경험



2) 부정적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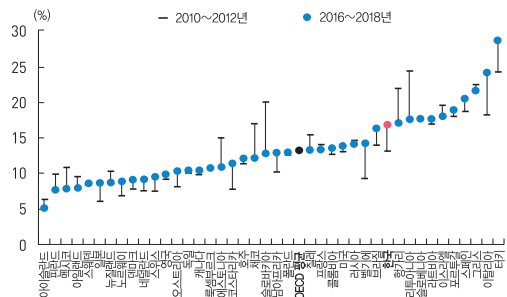
주: 1) 긍정 정서는 행복감, 웃음, 즐거움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이며, 부정 정서는 근심, 우울, 분노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2) 통계치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해당 정서를 경험했는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았다'(0점)-매우 그러했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이용한 이 결과는 앞서 우리가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본 것과 수준은 비슷하지만 추세는 정반대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이 집단의 비율이 20%에서 1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조사의 측정 방식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가 긍정 정서를 행복감 하나로, 부정 정서를 근심과 우울 둘로 측정한 반면, 「갤럽 월드폴」은 긍정 정서를 행복감, 웃음, 즐거움 경험의 평균으로, 부정 정서를 근심, 우울, 분노 경험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림 XII-18] OECD 국가별 부정 정서 우세집단 비율, 2013, 2018



주: 1) 긍정 정서는 행복감, 웃음, 즐거움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이며, 부정 정서는 근심, 우울, 분노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2) 통계치는 부정 정서 경험이 긍정 정서 경험보다 강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2020.

맺음말

주관적 웰빙은 비교적 최근 국제적으로 또한 한국에서 사회지표의 영역으로 포함되었지만 삶의 질 측정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긍정, 부정 정서경험, 유테모니아의 세 측면으로 측정된다.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의 추세는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만족하는 집단의 비율과 만족도의 평균 모두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정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불만족 집단의 비율이나 만족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만족도 평균은 OECD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불만족 집단 비율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만족도 격차의 정도는 중간 수준이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1인당 GDP로 측정한 물질적 생활수준과 비교할 때 시계열적으로나 국제비교 상으로나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삶의 향상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자유의 확대와 유대의 강화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인 대만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서경험을 보면 한국은 긍정적 정서경험이 유럽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인 반면, 부정적 정서경험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 결과 부정적 정서경험이 긍정적 정서경험보다 우세한 집단의 비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